

대만 인력의 (중국)대륙 취업 열기와 현황

1. 개요

- 최근 대만 104인력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 구직자들 사이에 ‘대륙 취업(西进大陆)’을 희망하는 인력들이 급증하고 있음.
- 최근 경기부진 여파로 중국의 취업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만 인력의 대륙 취업 열기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“대3통(大三通)”과 대륙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.
- 중국 대륙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힘입어 향후 대만 인력의 대륙 취업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.

2. 대만 인력의 대륙 취업 현황

가. 대륙 취업 열기 고조

- 1) 이는 미국의 서부개척 시기에 구직을 위한 대거 이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대만 인력들의 대륙 취업에 대한 열의를 의미하는 표현임.
- 2) (중국)대륙과 대만 양안간 직접무역(通商), 직항개설(通航), 서신왕래(通郵)가 기존의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소3통(小三通)은 마잉주(馬英九)정권 출범(2008.5) 이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대3통으로 불림(2008.12).

□ 104인력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,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만 인력 중 대륙 취업희망자 (연인원 기준)는 매월 10%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양안간 직항이 개설된 2008년 7월에는 전월 대비 20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또한 대만 104인력은행과 《远见》잡지가 공동 조사한 결과 약 45%의 직장인들이 대륙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응답하였으며, 40% 이상의 대만 기업들은 대륙이 대만 제2의 취업시장으로 인식한다고 평가

나. 대륙 취업 희망자들의 특징

□ 대륙 취업 지원자의 연령분포를 보면, 31~40세가 51.2%로 가장 많았으며 21~30세가 23%, 41~50세가 20.3%를 차지함.

- 지원자들의 학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, 50% 이상이 대졸이상의 학력 소유자며, 그 중 19.6%는 대학원 학력을 소유

□ 대륙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일부에 집중

- 대륙 취업 지원자들은 전통적으로 광둥(广东)지역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상하이(上海)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새롭게 선망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.

· 대륙 취업 지원자 중 약 50%는 광둥성(广东省)을, 20%는 상하이(上海)를, 3위로는 쑤저우성(江苏省)을 희망 지출 지역으로 선택

· 금융업 구직자의 경우에는 43%가 상하이(1위), 26%가 광둥(2위)을 선택

□ 104인력은행과 1111인력은행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, 대륙 취업시 유망 업종은 전자정보 관련업, 제조업,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나타남.

- 104인력은행은 전자, 금융, 요식업 등은 대륙보다 먼저 발전한 업종으로 이 부분의 대륙 취업이 비교적 유리할 것으로 평가
- 특히 금융업의 경우 대만 내 노동력 수요 감소로 인력 과잉공급 상태에 있어 이들의 대륙 취업에 대한 의사가 높음.

다. 대륙 취업 열기 고조의 원인

□ 잠재시장과 발전 가능성이 큰 대륙경제에 대한 기대

- 2008년 대만의 실업률은 5.03%를 기록, 실업인구는 54.9만 명으로 역대 최고(中国台湾网, 2009.1.22)
- 이에 따라 대만 내 취업시장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두운 실정임.
- 104인력은행의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의 67.1%가 대륙 취업 희망 동기를 “대륙경제의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”이라고 밝힘.
- “중국 대륙의 업무 환경이 대만에 비해 더 국제적”이기 때문에 대륙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의 26.8%를 차지

□ ‘대3통(大三通)’의 결과 상하이-대만 간 직항이 개설되는 등 대만과 대륙간 거리 및 시간적 기회 비용이 낮아진 것도 대륙 취업 열기를 고조시킨 것으로 보임.

라. 대륙 취업 대만 인력들의 취업특징

□ 104 인력은행이 2008년 하반기 대만 인재 데이터(台湾人才数据库)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대륙에 취업한 대만 인력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.

□ 현재 대륙에서 대만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주로 제조업, 가공, 건설업이고 그 다음으로 IT 및 통신, 무역, 물류 및 도·소매, 금융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.

□ 이들의 연봉을 살펴보면, 10만 위안 이하는 5.1% 밖에 되지 않고 10~20만 위안은 38%, 20~30만 위안은 32.4%, 30~40만 위안 10.1%이었으며, 40만 위안 이상은 14.3%로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임(평균 임금수준은 약 25.4만 위안).

- 특히 금융서비스업 종사자의 수입이 가장 높았는데 연간 수입이 약 38만 위안에 달했고, 제조, 가공,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27.2만 위안

□ 대륙 취업 대만 인력들의 연봉 수준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업무경력이 풍부한 인재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.

- 조사 대상 대만 인력 중 90%는 총 근속년수가 5년 이상 이었고, 그 중에 10년 이상은 60%에 이

- 또한 이들 중 55%는 5년 이상 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

- 이외에도 대륙에서의 근속년수도 연봉수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대륙에서 근무한지 8년 이상 경력자는 평균 연봉수준이 35만 위안, 2년 미만의 경우 23.56만 위안으로 비교적 큰 격차가 남.

3. 중국과 대만의 반응 및 전망

□ 이미 양안의 적극적인 인력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.

-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, 해협양안인재교류와 인력자원서비스합작대회(海峡两岸人才交流与合作大会)가 푸조우(福州)에서 개최됨(2008.6.17).

· 이 대회에 61개의 대만 인력자원기구와 100여 개의 중국 인력자원기구가 참가했을 뿐 아니라 대만기업과 대륙기업간 220건의 채용협상이 이루어졌음.

□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대만 인력 유치에 나섰고, 대만 측도 대륙을 중요한 취업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임.

- 특히 대만과 근접한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인데, 푸젠성(福建省)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먼저 대만전문기술자자격심사(台湾地区居民专业技术资格评审)를 개방하는 등 대만 인력들에게 각종 직업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시킴.

- 일부 대만 대학교에서는 ‘간체자 학습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향후 졸업생들의 순조로운 대륙 취업을 위해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기도 함.

□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만이 중국 대륙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경제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만 인력의 대륙 취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

- 대만 마잉주(马英九) 정부의 경제건설목표인 633플랜³⁾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교류와 협력이 불가피한데, 특히 양안(两岸)간 인적·물적 교류부터 자유화 될 것임.

- 따라서 향후 보다 자유로운 인력교류를 위한 제도 및 규정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
· 특히 대만 인력의 대륙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격증 취득에 관한 규정 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.

<참고 자료>

《第一财经日报》, ““三通”释放吸引力台湾人才“西进”意愿上升”, 2009. 1.13

《环球》, “台湾人才争相“西进大陆””,

3) ‘633 플랜’은 매년 경제성장률 6%를 달성하고 2016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, 2012년 이후 실업률 3% 이하를 달성한다는 구상임.

www.news365.com.cn/wxpd/wz/lasd/200804/t20080422_1843587.htm

(자료 정리: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박사과정 이성란)